소주의 위로와 구주의 위로

(고후1:1~11)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소주의 위로와 구주의 위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소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술인 그 소주, 그리고 구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찾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소주가 위로가 되어주고 구주가 위로가 되어줍니다.
자, 어떤 위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며 찾아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 제가 먼저 나와서 한 4, 5개월을 혼자 지내게 되는데, 그때 지내던 처소를 서울 강남 한복판에 마련했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점심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먹지만 저녁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머무는 처소 근처에 있는 곳에 나와서 식사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곳이 마침 강남의 유명한 먹자골목이었어요.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나와 보면 굉장합니다.
여름 같은 때 날씨가 좀 괜찮으면 그 식당들 바깥에다가 드럼통 같은 걸로 만든 식탁을 내놓고, 그것뿐만 아니고 식당 안에도 온 동네전체가 다 술 동네가 돼버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몰려 앉아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안주 삼아서 전부 술을 먹는데 주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늘 염려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 정말 그래요, 낮술을 마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 생활을 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맥주를 좋아한다고 해도 낮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지금 이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또 심각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소주를 마시는 이 광경은 로마제국의 전성기 때의 원로원 귀족들이 누리던 호사나 사치가 아닙니다.
중국의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와 놀아날 때 먹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저 직장에서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다 받다가, 근무시간이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거예요.
집에 당장 들어가 봐야 마누라 자식과 싸우는 모습, 돈 없다고 바가지 긁는 모습, 승진은 언제 하느냐 닦달하는 그런 모든 광경들을 피해서 자구책으로 술들을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소주가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 당장당장 풀지 않아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안 그래도 자살이 많은 나라에 이런 좌절과 절망의 늪 속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라도 푸는 것이 어디냐 이겁니다.
어차피 신앙을 모르고 주님을 모를 바에야,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모를 바에는 차라리 소주의 위로가 그나마 불신앙적인 서민적인 내일을 이어가게 해주는 한 가닥 위로의 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주를 다시 봤어요, 제가.
한자를 무시하면 똑같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구주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소주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자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소주적(的) 위로를 찾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업이 망하는 환란을 당하거나 자식의 환란을 당하거나 건강상의 환란을 당하거나, 어떤 환란을 당해도 우리 위로의 끝은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생긴 환란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환란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환란도 결국은 연단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주어지는 환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궁극적인 위로는 하늘나라를 갖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주적(的)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이기까지는 고린도교회와 사도바울 간의 관계 안에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행되면서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데 환란과 위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이 '파라클레시스'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의 뜻은 옆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내 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 갖는 사전적인 의미인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인 정의입니다.
'내 곁으로 부른다'
자, 소주를 마시는 자리가 왜 위로가 됩니까?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는 동안에 내 옆에 동료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불러준다는 이 말이 참으로 대단한 위로에 대한 정확한 정의 아닙니까?

그리고 소망과 위로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소망을 통해서 현재의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도 결국은 위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사업에 망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줍니까?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사업을 일구어내자,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 옆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자식의 일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위로를 어떻게 해줍니까?
열심히 1년 더 해서 내년에는 이번에 떨어진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본때를 보여주자, '더 좋은 대학'이 소망이 돼가지고 옆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곁으로 부른다는 의미에서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소망의 내용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무려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고린도후서의 환란과 위로의 얘기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환란의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소주적인 위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면 이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주의 위로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치와 방탕과 호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어찌할 바 모르는 자연인들이 돌파구를 찾느라고 붙잡는 소주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소주적인 위로와 소망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이라 이겁니다.

자, 환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에서 생각한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잠든 상태에 있는 부활 직전의 '나'라는 인격의 특성,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해주는 그런 특성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격 속에 형성되어 있는 영성의 크기와 정도의 차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성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격 속에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성이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성은 자녀와 관계할 때 반응하는 속성이고, 사회성은 사회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돈성, 돈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인격의 속성.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게 관계하면서 반응하는 속성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디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속성이 생긴 것이 영성이고, 그 영성이 있는 자라야만 참된 영화로운 영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성이 없이 육체에 근거된 대상들에 대해서만 관계함으로써, 모성만 있고, 부성만 있고, 돈성만 있고, 건강성만 있는 채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영성부재의 상태가 되고 그럴 때 부활하게 되면 지옥과 심판에 합당한 영체를 입고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도대체 환란의 의미는 무엇이냐?

삶에서 환란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환란이 왜 두렵고 무섭고 싫습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가거나 빼앗아가려는 위협을 주기 때문에 환란이 무섭고 두렵고 싫은 겁니다.
내가 환란을 통해서 상실하게 될 것이 가족과 같은 사람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물건이든지, 또 혹은 나라, 나라를 상실하면 안정된 삶을 다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궁극적으로 내 목숨을 환란에 의해서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체면, 이 명예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또 환란을 통해서 상실하게 되는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환란 앞에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무능함을 절감하게 되고,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는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처럼 처절할 정도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면 환란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렇게 마음이 붙잡고 있는,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얘기고 좋아한다는 얘기고, 좋아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게 두렵지요.

자, 그런데 그토록 두려워하고 싫어하던 환란이 기어코 찾아왔어요.
그렇게 마음에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환란을 통해서 상실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인들의 환란을 통해서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던 것들이 환란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때, 죽을 줄 알았거든요? 이젠 끝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들, 마음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것들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아니 하시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게 됩니다.
이 순간이 위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심으로써, 붙잡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당신 옆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동안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돈 벌게 된 상황보다 더 좋고, 자식이 잘되는 것보다 더 좋고, 내 건강 때문에 오래오래 잘사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곁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됨을 통해서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환란의 의미에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사건적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박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내가 내 목숨을 의지합니다, 목숨을 붙잡는다는 얘기에요.
목숨이 있어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꼴을 볼 수 있으니까, 목숨이 없는데 좋은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목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경우 디모데를 의지합니다, 디모데를 의지함으로써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근데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육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감을 가질 수 잇을 정도로 큰 환란이 주어졌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서 제거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이야기를 욥도 동일하게 합니다.
자식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건강이 없어집니다, 아내가 사라집니다,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명예도 체면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 환란과 고통을 다 지나는 동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자식이 살아있고 친구가 살아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존경이 나를 따르고 있을 그때는 그 모든 것들에 가려서 내가 그토록 경외하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환란이 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뵈옵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로가 이런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사업 망한 김 집사님을 위로하는 것이 기독교적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실패는 병가지상사니 이 사업의 실패를 경험삼아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실패 없는 놀라운 사업의 번창을 이루어냅시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위로고 소주적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려면 망한 사업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의 온갖 소주를 갖가지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소주가 뭐냐 하면 돈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자식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 그게 소주에

요, 자식이 영적으로 보면 소주의 위로라는 겁니다.
사업 잘되는 것, 이게 소주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이 느낄 때 위로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 마귀가 하나님이 없으므로 느껴지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서 사업 잘되는 것,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 자식이 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주의 위로와 같다는 겁니다, 구주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환란을 당할 때 어떤 상태라야, 내가 지금 육체가 있으므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환란으로 없어질 때, 그 없어지는 것들을 더 크게 붙잡기 위해 내 의욕을 두 배로 발동시키는 대신에, 상실하는 세상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분해하고 하면서 더 크게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재충전하고 자가 발동 하는 대신에,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는 참 위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참 위로가 넘치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이 넘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도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환란을 당할 때, 환란이 내가 그동안 마음에서 붙잡고 있던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 더 큰 세상 것으로 보상 받음으로 위로받지 말고, 더 큰 세상 것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지 말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 것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환란이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갈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 목숨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환란이 내게서 사업을 앗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 죽는 겁니다.
환란이 내게서 재물을 빼앗아갈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으면서 환란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의미에서의 '파라칼레오'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제외해놓고 환란을 맞이하면, 소주의 위로를 찾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소주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빼앗겨져가는 사업에 대해서 죽고, 빼앗길 것 같은 자식에 대해 죽고, 빼앗길 것 같은 내 인생의 명예에 대해 죽고, 다~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마음이 부름을 받아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나서도 사업은 사업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다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망으로 위로의 내용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환란의 기회, 얼마나 비싼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비용으로 치러야 되는 순간입니까?
근데 왜 이걸 헛되게 날려버립니까?
교회 강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얻게 되는 소망으로서 위로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에서의 '파라칼레오', 진정한 구주의 위로를 선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 또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사는 모든 교인들에게, 환란을 당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환란에 의해 상실되어질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미 상실하는 현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앞서서, 자발적으로 미리 죽어버리는 이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환란의 기회를 통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로 찾아와주시고, 그들이 당면한 세상의 모든 일들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의해서 다 제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므로 찾게 되는 소주의 위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소주적 위로가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권면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환란의 때를 충분한 은혜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